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순천시청 최진 '금'

대통령배 남녀 양궁

국내 대회에서조차 한 번밖에 우승하지 못한 공사 최진이 올림픽 3관왕 윤미진(24·경기도체육회)을 제치고 대통령배 여자 개인전 정상에 우뚝 섰다.

최진(28·순천시청)은 19일 강원도 원주양궁장에서 열린 제26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양궁대회 3일째 여자 일반부 개인전 4강전에서 윤미진을 108-99(120점 만점), 9점차로 누른 데 이어 결승에서 허윤정(27·광주시청)을 107-105로 꺾고 우승했다.

또 고등부에선 홍수남(17·광주체고), 대학부에선 김예슬(18·경희대)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2001~2003년 국가대표에 긴 적이 있지만 국제대회 성적이라곤 2001년 코리아 국제양궁대회와 유럽 그랑프리 3차 대회 개인·단체전 1위, 같은 해 세계선수권 단체전 3위가 고작인 최진이 2000년 시드니와 2004년 아테네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3개나 딴 윤미진을 꺾은 건 이 대회 최대 이변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바람의 영향도 있었다. 3발씩 4엔드 12발로 승부를 겨루는 가운데 준결승전에서 최진이 1엔드에 26점을 쏜 반면, 윤미진은 1엔드 두 번째 화살을 4점에 맞히는 등 19점에 그쳐서 7점을 뒤졌고, 끝까지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최진은 "미진이 초반에 실수한 덕분"이라며 "국내대회 개인전에서 우승한 건 2003년 종합선수권대회 이후 처음"이라고 감격해했다.

“호랑이 약점

‘KIA, 중위권 도약을 위해 3가지 속제를 풀어야’

KIA 타이거즈가 지난주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3승 3패를 올렸다. 6위 우리 히어로즈와는 1.5, 4위 롯데 자이언츠와는 4.5 게임 차이가 난다. KIA는 이번 주 4위 팀 롯데와의 홈 3연전에 이어 최하위 LG와 원정 3연전을 치르게 된다. 중위권 진입을 위해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두 팀과의 대결. 3가지 아킬레스건을 넘어서는 것이 관건이다.

◇신구(新舊)의 부조화=몇 년째 지지부진한 세대교체로 KIA는 신·구 격차가 크다.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영건’들의 폐기와 노장들의 노련미의 조화가 필요하다.

특히 마운드에서 노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19일 현재 1군 엔트리에 있는 투수 11명의 평균 연령은 25.5세. 10년차 이상의 리마(36)·이대진(34)·유동훈(31)을 제외하면 평균연령이 22.3세까지 내려간다. 유동훈 다음 연차의 투수는 6년차 임준혁(24)이다.

경험이 적은 젊은 투수들이 많다 보니 예상치 못한 변수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지난 18일 선발 이범석(23)은 LG 김재박 감독의 흔들기에 무너졌

- ① 新舊 부조화
- ② 주전들 부상
- ③ 결정적 실책

확~ 줄여라”

■ KIA 중위권 가는 길

◇프로야구 중간순위 (19일 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K	28	13	0	0.683	0.0	1패
2	두산	23	17	0	0.575	4.5	1승
3	한화	23	20	0	0.535	6.0	1승
4	롯데	20	19	0	0.513	7.0	1패
5	삼성	21	21	0	0.500	7.5	1패
6	우리	19	24	0	0.442	10.0	1승
7	KIA	17	25	0	0.405	11.5	2패
8	LG	16	28	0	0.364	13.5	2승

다. 이범석이 공을 던지는 오른손 손가락으로 몇 차례 땀을 닦자 김재박 감독이 ‘투수들은 공, 손, 글러브에 침 등 물기를 바르는 것을 금지한다’는 야구규칙을 들어 어필했다. 페이스가 흔들린 이범석은 이날 2이닝 동안 4실점 하며 조기 강판됐다.

◇줄 잇는 부상=김삼훈·서재용·장성호·최희섭 등 핵심 배터리와 타선의 핵 3, 4번 타자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타선에서 최경환, 이재주 등이 지원 공세에 나섰지만 정교한 3번 타자와 한 방

있는 4번 타자의 부재가 아쉽다.

든든하게 로테이션을 지켜주던 서재용의 공백은 당장 이번 주 마운드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오준형을 새로 합류시키는 등 부랴부랴 마운드 재정비에 나섰지만 5이닝 이상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선발 서재용의 빈자리가 크다.

의욕이 앞서다 보면 자칫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KIA는 상대 팀과의 대결뿐만 아니라 부상과의 전쟁도 치러야 한다.

◇결정적 실수=KIA는 지난 13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선발 이범석의 완투에도 1점 차 승부를 뒤집지 못하고 0-1로 완봉패를 당했다. 이날 2회 선두타자로 나온 이현근이 안타로 출루하면서 상대투수 송진우를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이현근은 폭투 때 타석에 있던 김종국의 제지에도 무리하게 진투를 하다 황사를 당했다. 이후 KIA는 변변한 공격 한 번 펼치지 못하고 완봉패를 당했다.

흐름이 중요한 야구에서 결정적인 실책과 주루사는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전 이탈’ 약재 속에 중위권 진입을 노려야 하는 KIA에게는 단 하나의 실수도 허용치 않는 집중력이 절실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金 과녁 조준

19일 강원도 원주양궁장에서 열린 ‘제26회 대통령배 전국남녀 양궁대회’ 여자부 개인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활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최나연 사이베이스클래식 2위



최나연(21·SK텔레콤·사진)이 아쉬운 준우승을 차지하며 신인왕 레이스 선두를 질주했다.

최나연은 19일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 어퍼 몬트클레어 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사이베이스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에게 1타가

모자란 9언더파 207타로 공동2위에 올랐다. 미국 진출 이후 가장 뛰어난 성적을 낸 최나연은 시즌 네번째 ‘톱10’ 입상과 함께 신인왕 레이스에서 1위를 고수했다. 청야니(대만)에게 신인왕 포인트에서 19점차로 앞섰던 최나연은 이번 준우승으로 80점을 보태 59점차로 달아났다.

조건부 출전권자로 어렵게 경기에 출전해온 최나연은 11만4천달러의 상금을 받아 사실상 내년 시즌 전경기 출전권을 굳혔다. 시즌 상금이 34만8천달러로 불어난 최나연은 이미 지난해 상금랭킹 30위권에 진입했다. LPGA 투어는 상금랭킹 90위 이내 선수에게 이듬해 전경기 출전권을 부여한다.

오초아는 지독한 퍼팅 난조 속에 1언더파 71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06타로 정상에 올라 시즌 여섯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5언더파 67타를 뽐낸 재미동포 김초롱(24)이 7위(8언더파 208타)를 차지했고 최혜정(24·카스코)은 71타를 쳐 8위(7언더파 209타)에 올라 올해 들어 처음 ‘톱10’에 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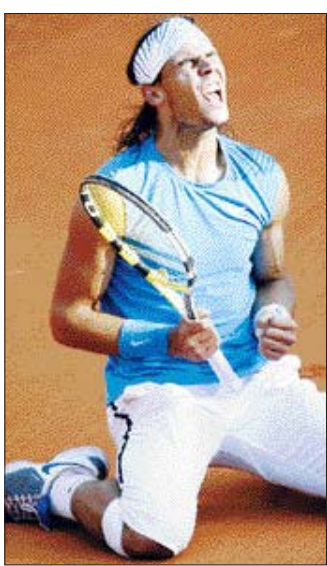
日 이마다 류지 생애 첫 PGA 우승

일본의 이마다 류지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마다는 19일(한국시간) 조지아주 달루스 슈가로프TPC(파72·7천343야드)에서 열린 AT&T 클래식 마지막 라운드에서 5타를 줄인 15언더파 273타를 쳐 케니 페리(미국)와 동타를 이룬 뒤 연장 첫번째 홀에서 승부를 걸었다. 이마다는 14세 때 골프를 배우기 위해 플로리다로 이사온 뒤 조지아대학을 나온 유학파. 이마다는 작년 이 대회에서도 연장전까지 갔다가 잭 존슨(미국)에게 우승컵을 넘겨 줬지만 이번에는 우승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18번홀(파5)에서 열린 연장 첫번째 홀에서 페리의 두번째 샷이 그린 오른쪽 나무를 맞고 연못에 빠졌고 이마다는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2퍼트로 마무리했다.

나달, 페더러 꺾고 시즌 3승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2위 라파엘 나달(22·스페인)이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27·스위스)를 물리치고 시즌 3승째를 거뒀다. 나달은 19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ATP 마스터 시리즈 함부르크 단식 결승에서 페더러와 172분 혈투 끝에 2-1로 이겨 우승 상금 36

만유로를 획득했다. 지난 해 이 대회 결승에서 페더러에 패해 클레이코트 연승행진이 81에서 끊겼던 나달은 설욕전과 함께 올 시즌 두 번 맞대결에서도 모두 이겨 25일 개막되는 프랑스오픈 전망을 밝게 했다.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인터내셔널 이탈리아(총상금 134만달러)에서는 엘레나 안코비치(4위·세르비아)가 엘레나 코네(34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이 대회 복식 결승에서는 찬용준-추상치(이상이상대만) 조가 이베타 베네소바(체코)-자넷 후사로바(슬로바키아) 조를 2-0으로 꺾고 우승했다.

42세 송진우 신화 또 쓴다

프로야구의 최고령 투수 송진우(42·한화 이글스)가 또다른 대기록을 향해 공을 뿌린다.

송진우는 2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와 경기에 선발등판해 스물 한살 어린 후배 김병제(두산)와 마운드 대결을 펼친다.

이날 송진우가 탈삼진 8개를 추가하면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개인 통산 2천 탈삼진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한다. 탈삼진 2천개는 미국 메이저 리그에서도 61명, 일본에서도 18명에 불과할 정도로 드문 기록이다.

더구나 프로 20년 동안 팀 사정에 따라 선발과 마무리, 중간계투 등 보직을 가리지 않고 활약한 것을 감안하면 더 대단하다.

송진우는 현재 205승(147패), 103세이브를 사냥했다. 단일리그에서 200승-100세이브-2천탈삼진을 기록을 세운 선수는 미국에는 없고 일본 프로야구의 에나쓰 유타카(206승, 193세이브, 탈삼진 2천987개)가 유일하다. 송진우가 앞으로 95와 3분의 2이닝을 보태 대망의 3천이닝 투수로 가는 과정에서 한국 프로야구의 새로운 ‘신화’를 쓰게 되는 셈이다.

시속 140km가 넘는 강속구가 아니라 절묘한 제어력으로 승부하는 송진우가 한 경기에서 탈

탈삼진 8개만 추가하면 개인통산 첫 2000K 대기록



삼진 8개를 잡는 것은 쉽지 않다. 올해 9차례 등판에서 탈삼진 최다 경기는 지난 달 3일 우리 히어로즈를 상대로 5이닝을 던지면서 기록한 6개다.

하지만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어 가능성은 충분하다. 송진우는 지난 7일 롯데전부터 구위를 회복해 두 경기 연속 6이닝 이상 투구했고 13일 KIA전에서는 탈삼진 4개로 타자들을 돌려세웠다. 또 올해 4~5일 쉬면서 등판하다 처음으로 6일이나 재출전한 뒤 나오는 것이기에 체력적으로 걱정이 없다.

송진우는 빙그레(한화 전신) 유니폼을 입고 1989년 4월12일 대전구장에서 벌어진 롯데와 경기에 등판해 사상 다섯번째로 데뷔전 완봉승을 거두면서 화려하게 프로에 입문했다.

이후 꾸준한 활약을 펴다가 지난 해 팔꿈치 부상으로 35와 3분의 2이닝 투구에 그치면서 최대 고비를 맞았지만 올해 재기에 성공해 선발투수로 돌아왔다. ‘기록의 사나이’ 송진우가 20일 잠실벌에서 짜릿한 탈삼진 행진으로 프로야구 역사의 한 획을 다시 그을지 주목된다.